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 사업 11월 착공

10km 제방 쌓고 흙메우기 공사... 9월까지 입찰제안서 받아 2024년까지 1조1000억 투입 사물인터넷·리조트 등 건립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10일 새만금개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매립공사를 11월에 시작하기로 하고 지난 7일 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

수변도시는 2024년까지 1조1000억여원을 들여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6.6㎢ 부지에 2만5000명이 사는 규모로 조성된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이

적용된 중·저밀도 주거시설, 국제업무시설, 복합리조트 등이 들어선다.

매립 공사는 도시 조성을 위해 10km 길이의 제방을 쌓고 바다를 메우는 것이다. 1649㎡의 흙이 들어가며, 전체 사업비는 1625억원이다.

제방 축조 등 공사 난이도 등을 고려해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추진된다.

입찰공고 후 입찰에 참여할 업체는 오는 9월까지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설계한 기본설계를 기초로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게 된다. 9월말 기술제안과 입찰가격 등을 평가해 실시설계와 건설공사를 동시에 수행할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할 뒤 11월말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 공고에는 기존 새만금사업 보다 한층 더 강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지역기업 우대) 내용이 반영돼 있다.

공공수급제 구성 시 지역업체 참여율 30%이상 권장, 하도급 계약 시 물량에 지역업체 참여율 50% 이상 권장 등의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포함시켜 지역기업 참여확대를 유도했다.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공공주도의 개발 선도사업으로 새만금사업 활성화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해 전북지역의 집체된 건설경기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국경과제 78번에 반영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한 공공주도 매립'의 선도사업으로 새만금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조선=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주민센터·생활문화시설·행복주택 '한 곳에'

정읍시 수성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10월 착공

정읍시 수성동 이 함께 건설되는 수성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이 오는 10월 착공할 전망이다.

정읍시는 LH(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수성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조감도>이 오는 2022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공기업제한형)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읍시는 총공사비 184억원을 투입해 수성동 주민센터 건립과 생활문화시설, 행복주택(98세대) 등을 조성한다.

수성동 주민센터를 재건축하고 북카페·컨벤션홀 등 생활문화시설을 설치한다.

지난해 설계용역에 착수한 후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지난 8일 용역보고회를 거쳐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월에는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행복주택 98세대와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서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노약자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복지가 향상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수성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공공시설과 문화시설, 행복주택이 어울려 쇠퇴한 원도심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청년층의 주거 안정 도모와 인근 도심지로의 파급효과를 통해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 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세계유산 미륵사지서 클래식 공연 즐기고 문화유산도 보고

'박물관을 품은 미륵사지' 사업 익산시, 10월까지 운영

익산시가 세계유산인 미륵사지에서 공연도 즐기고 문화유산을 향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부터 미륵사지 일원과 백제왕궁(익산 왕궁리 유적)에서 '박물관을 품은 미륵사지'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익산시와 문화재청, 전북도가 주최하고 룩스필모니 오케스트라가 진행한다.

세계유산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시민을 대상으로 세계유산인 백제왕궁과 미륵사지를 탐방하며 무왕의 도시 백제왕도 익산의 역사 인식을 높이고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5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지며, 기상 상태 및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차원에서 야외에서만 진행되는 이 행사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펼쳐진다. 오후 2시부터는 국립익산박물관 야외공연장에서 클래식,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소규모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는 미륵사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음악 공연을 한다.



익산시는 세계유산인 미륵사지에서 문화유산을 향유하면서 클래식 공연도 즐기는 '박물관을 품은 미륵사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진은 익산 미륵사지 전경. <익산시 제공>

탐방 프로그램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QR코드)을 통해 프로그램 참가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미륵사지 내에 있는 국립익산박물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에 맞춰 사전 관람 예약제로 시행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신

청을 받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시간당 200명만 입장을 허용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세계유산을 활용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무왕의 도시 익산의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군산 '배달의 명수' 질주 시민 3명 중 1명꼴 가입

군산시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공공 배달 앱 '배달의명수'가 가맹점과 회원, 주문 건수 등이 모두 급증하며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10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 앱의 가맹점 신청 업소는 지난 5일 현재 870곳을 넘어섰다.

출시한 지 50여일 만에 이른 성과로, 군산시가 애초 목표로 삼은 1000곳 달성도 눈앞으로 다가왔다.

가입 회원도 9만2770여명에 이른다.

군산시 인구가 26만9000여명인 점을 고려하면 3명당 1명꼴이다. 가구(11만8000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웬만한 집은 다 가입한 셈이다.

지금까지의 주문 건수는 4만2270여건이다. 금액으로는 10억1700여만원에 이른다. '배달의명수'는 자영업자에게 이용 수수료와 광고료를 한 푼도 받지 않으며, 소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어 음식값을 최고 10% 할인받는 구조다.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이 사실상의 수수료 인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도입을 추진해 주목받았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남원시, 정부와 별개로 재난지원금 10만원씩 지급

남원시가 정부지원과 별개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남원시는 올해 계획된 용배수로 정비와 도로개설사업 등의 세출 구조를 조정해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남원시는 '남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재원을 마련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

남원시가 지급할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은 향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선불카드 만료기간인 8월 31일을 고려, 가장 적합한 시기를 결정해 지급된다.

잠정적으로 9월 초순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남원시는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한해서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선별적 복지를, 보편적 복지로 전환시키려고 계획해 왔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30%를 자체예산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었다.

최근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선회함에 따라 지급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지역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삼호유황오리, 오리 3000마리 기탁



정읍시 고부면에 소재한 ㈜삼호유황오리는 지난 8일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오리 3000마리를 기탁했다. <사진>

기탁된 오리는 23개 읍·면·동의 취약계층과 참좋은푸드(대표 유영준)가 지원하는 취약계층 세대에 골고루 전달될 예정이다.

삼호유황오리는 오리 사육·도축·가공·유통하는 오리 제품 전문 생산 기업으로 지역 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체 생산한 오리를 꾸준히 기부해 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세중 대표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기부 물품을 전달하게 됐다"며 "이번 기부로 지역공동체가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 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